

토기장이 (로마서 9:19-29)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다. 세상은 앞으로 계시록에 기록된 것과 같은 현상이 계속 될 것이다.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시면 다시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가실 것이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일어난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까지 일어난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그들을 가둘 것이다. 이때 사단도 영원히 그곳에 갇힌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에서 제외된 것이다. 너무나 감사하다. 예사로 죄사함이라 하지만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하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 졌다. 요한복음 5:24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였다. 앞으로 올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에게 평범한 말이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절대 절명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3:16도 귀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신다. 우리는 창세전의 은혜로 인하여 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무슨 심판이 있어도 우리와 관계 없다.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안 좋은 것은 그 사람들하고나 관계 있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재림예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다. 믿는 순간에,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 영생은 절대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은혜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두려워 한다. 무슨 말씀이든 두려우면 힘이 난다. 세상에 모든 일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모든 망대중에 영적 망대가 가장 근본이다. 원리가 본래 그렇다. 오늘도 이 부분에 중대한 응답이 있기 바란다.

1. 토기장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는 것이다. 지지만주에 본 것은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태중에서 결정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달음박질한다고 되는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홀이 여길사람은 공홀히 여기고 완악하게 된 자는 완악하게 둔다는 것이다. 그러면 19절의 말씀은 그러면 어찌라는 말이냐? 나에게 기회도 없다는 것이다. 창세전에 결정되었는데, 나는 어찌라는 말이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죄인이라고 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어찌라는 말이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능히 할만한 말이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다. 그제 20절이다. 이 사람이 누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누가 원대 하나님께 대드느냐는 것이다. 너는 만들어진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1절에 토기장이가 귀히 쓸 그릇,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 만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지지만주에는 바로를 예로 들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언약을 잡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해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니가 할 말이 있느냐는 것이다. 멸망받기로 준비된 자들에게는 엄청 놀리는 논리이다. 아무런 기회도 주시지 않고 죄인이라고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이런 하나님을 왜 믿냐고 하며 대드는 인간들이 많다. 우리는 모른다. 여하튼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대드는 인간들 보고, 그럼 지금 믿어라. 그러면 우리같은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너도 믿어버리면 너의 운명적 축복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믿어라. 그래도 안 믿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만 한다. 그러니까 어찌라는 말이냐는 것이다.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억울한 논리지만 그들이 억울한 만큼 표현할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는 것이다. 나와 정말로 아무런 관계도 없이. 창세전에 결정되었으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 끝내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 항상 감사하고 진짜 어쩔줄 모르는 감사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표현을 못할 정도로 감사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늘 미스터리이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억울하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지 확인할 것은 조금전에 말한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다는 생각도 없다. 그리고 이런데 대해서 관심도 없다. 대드는 인간은 혹시라도 기회라도 있을수 있으나 믿으라 해도 절대 안 믿는다. 내가 예전에 약국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왔다. 딱 봐도 돌아갈 때가 다 되었다. 다른 분들의 말에 의하면 간경화인데 얼굴도 시커멓게 되었고 눈도 노랗게 되었고 복수가 차서 배도 부풀어올랐다. 아마 아팠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진통제를 사러 약국에 온 것이다. 그 때 한 알에 10원밖에 안되었다. 그래서 불쌍해서 진통제를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거 하나 먹는 주체에 그 약을 카운터에 던지며 욕을 하면서 나갔다. 그때, 은혜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후에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 사람이 길 거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다고 한다. 어찌겠는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내가 뭐 잘못된 것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합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유는 알수 없다. 그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뭐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토기장이라는 단어는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든 실질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우연이 없다는 뜻이다. 예외도 없다는 뜻이다. 이유없는 것도 없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바가 되었다고 하였다. 시편 139편 2절에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하였다. 139편 4절에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하였다. 이것이 절대 주권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바로 24시이다.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부여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맘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로 받는게 제일 좋다. 대부분의 우리는 안 그렇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 원한다. 그런데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사단에게

당하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일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공해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기 쉽다.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을 말할 수 있는 요소가 100개 있으면 100개가 다 있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맘대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고백해야 한다.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때 작품이 나온다.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 이런 축복안으로 들어오는 귀중한 날이 되기 바란다.

2. 제자

우리는 다 제자가 되기 바란다. 미국과 남미 살리고 인생작품을 만들기 원하는 사람, 우리는 다 그것을 바란다. 그래서 제자는 먼저 복음을 알아야 한다. 복음에 답이 나와야 하고 복음이면 된다는 답이 있어야 한다. 이 증거를 가지고 제자는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지식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독자 사역을 할 수 있다. 함께 가야 하고 강단과 함께 하고 전체 훈련중에 있어야 자신의 독자 사역이 있어야 제자이다. 그리고 제자는 성경적 전도전략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한다. 이 그림이 제 2의 언약이 되어서 성경적 전도를 말할 수 있어야 제자일 것이다. 이 그림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그림이 있는 사람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 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을 알기 때문에 언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선명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음 단계의 기도제목이 명확해진다. 그래서 이 그림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의 내용이다. 복음과 전도. 이 두가지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여정이고 그 결과가 작품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천 제자, 5천 제자와 같은 제자가 나온다. 그들도 제자라 표현했으니 제자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래도 사도바울의 전도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런 눈으로 보면 사도바울의 주변의 제자들은 복음과 그에 대한 증거를 당연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로 보는 지식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전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많이 보고 깨달았을 것이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 당시에 평신도가 목사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 없으면 안된다. 오네시모는 노예였는데, 도둑질을 했는데 감옥에 가서 잡혔는데 골로새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평신도이다. 그런데 목사가 되었다. 목사에게 지식과 증거와 눈이 없으면 아주 힘들다. 자기 자신이 더 힘들다. 지식과 증거와 눈이 없이 목사가 되면 힘들다. 하물며 복음운동에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그 당시와 비교하면 오네시모가 이 포인트에 어떤 사람일까 알수 있다. 야손은 사도바울은 사도바울이 3주 사역을 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맡았다. 여하튼 필요없고, 사도바울은 가버리고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했다. 평신도이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시아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야손은 어떤 제자였는가? 메시지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일이다. 브리스가 부부는 당시 성경학자 아볼로에게 복음을 설명했다. 아볼로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복음 설명으로는 끄떡도 안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브리스가 부부가 복음을 설명하려 왔을 때 적어도 몇가지 질문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부는 반드시 질문에 대해 성경적 답변을 주어야 했을 것이다. 구약성경과 현장의 증거로 설명했을 것이다. 아볼로 같은 사람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설명은 안 듣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 당시에 거의 사도바울과 수준이 같은 레벨로 봐야 하는 사람이었다. 물론 나중에는 차이가 많이 났다. 그

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다. 그래서 아볼로는 사도바울 밑으로 안 들어왔다. 사도바울의 제자에게서 복음을 받고도 사도바울에게로 안 왔다.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 정도 레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브리스가 부부가 설명하는 복음을 받고 그 이후에는 그 복음을 말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사도행전 18장 읽어보면 나온다. 루디아도 마찬가지로였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운동을 끝내고 갔다. 리더가 될 수 밖에 없다. 여자고 뭐고 필요없다. 귀신 들린 여종, 간수 가족하고 교회를 꾸려 나가야 했다. 이처럼 한 교회를 이끌어 나간 평신도 제자들이 어느정도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이 시대에 시대적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평신도 제자들의 목표는 미국의 목사이다. 미국의 목사들이 무릎을 꿇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게 성경적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훈련받은 것은 뒤에 남겨놓고 성경을 가지고 상대를 해야 한다. 그 이후에 우리 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였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33장 3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응답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 있기 전에 하신 말씀이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한마디로 토기장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도 토기장이이다.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 뜻대로. 제자는 이 원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절대로 변경하지 못하는 계획, 남아있는 것은 순종 하나 뿐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순종,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남은 것은 순종하나 뿐이다. 다른 의견 필요 없다. 왜 그런가? 정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남미 끝까지 가야 한다. 당연히 미국 끝까지 가야 한다. 당연히 땅 끝까지 가야 한다. 내 평생에 한 걸음도 못나가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입에서는 끝까지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된다.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고 정복하게 된다. 이것이 토기장이이다. 내 맘대로 한다, 너는 죽어라. 마태복음 16:24절에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죽으라는 것이다.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두 번 중복으로 말했다. 그런 사람 승리한다. 제자되고.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망한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쳤다면 방향이다. 딱 마음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생각 바꾸고 뒤짚어야 한다. 말만 듣고 생각이 안 바뀌면 여전히 제자리이다. 그래서 갱신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다.

오늘 본문 뒷부분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많아도 남은자만 구원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모래처럼 많아도 남은자만 구원 받는 것이다. 29절에 또 이야기 했다.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이 씨가 복음의 씨고,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 맘대로 하시기 기다리고 무릎 꿇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맘대로 하시는 축복이 임한다. 이 원리 안으로 들어간 자가 마태복음 6:33의 응답을 받는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확인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토기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바란다. 그래서 놀라운 평안과 해방과 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란다.